

[**영 화**]

화제작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제작보고회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제작발표회에서 영화를 연출한 송해성감독 (맨 왼쪽)과 주연배우인 이나영(가운데), 강동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 사람 죽인 사형수, 세 번이나 자살 시도한 여자

애뜻하고 기막힌 사랑

눈이 큰 선남선녀 이나영과 강동원이 닮은 눈물을 똑똑 흘리는 예고편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멜로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제작 LJ필름·상상필름)이 최근 제작보고회를 열었다.

소설가 공지영의 동명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세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선고받은 남자와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여자의 애뜻하고 기막힌 사랑을 그린다. '역도산'과 '파이란'의 송해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가을과 함께 9월14일 개봉한다.

송해성 감독은 영화에 대해 "소통과 구원에 관한 영화를 하고 싶었다. 선남선녀가 나오는 청춘 멜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큰 얘기가 있는 영화다. 결국은 소통과 화해가 테마가 되는 영화"라고 말했다.

-'연기에 앞서 어떤 준비를 했나.'
▲서울말로 꽤 있는 대본을 경상도 사투리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캐릭터와 친해졌다. 사형수를 맡은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구속받고 살아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교도소도 가보는 등 고민을 많이 했다. 또 수감을 찬 채 집에서 지내보기도 했다. (강)

▲캐릭터에 자신도 없었고 해야 할 숙제도 많아 감독님께 많이 의지했다. 항상 고민을

했던 것이, 관객으로 하여금 캐릭터를 마음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다. 날이 서 있는 느낌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을 항상 안고 살다보니 어느덧 날이 서 있었던 것 같다.(이)

-'공지영 작가가 이 소설을 영화화하면 송해성 감독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누군가 인정해준다는 것은 물론 감사하

강동원 "속박 느낌 익히려 집에서 수감차"

이나영 "캐릭터 날 선 느낌으로 전달하고 싶어"

송해성 감독 "사형수 강동원 너무 잘생겨 당황"

다. 하지만 영화 찍다가 라스트 장면에서 공작에게 촬영장에 와달라 부탁했다. 그리고는 '왜 소설을 이렇게 어렵게 써서 영화 만들기 힘들게 하느냐고 투정을 부렸다(웃음).(송)
-두 배우는 처음 만났을 때 느낌과 촬영 끝난 현재 느낌이 어떤가.

▲당연히 처음에는 서먹했다. 하지만 극중 한정된 공간에서 대사로만 연기를 해야 했기에 대사 연습을 하면서 친숙해진 것 같다. 달라진 느낌은 '그냥 인간이구나-' 하고 느낀다(웃음).(이)

▲처음 봤을 때는 외모에서 띄게 차가운 느

낌을 받았는데 친해지니까 털털하고 재미있는 분이더라. 스태프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다.(강)

-두 배우 모두 외모가 출중한다. 혹 원작 캐릭터 이미지와 상충되지는 않나.

▲세상에서 제일 말을 못하는 두 배우와 촬영을 했다(웃음). 사실 두 인물의 첫 만남을 촬영하던 날 굉장히 절망했다. 얼굴 클로즈업을 하는 신이었는데 강동원 씨의 얼굴을 보고 '이 얼굴이 과연 사형수의 얼굴인가' 고민했다. 너무 잘생겼기 때문이다. 그 충격에 한 시간 동안 촬영을 못했는데, 내가 하도 속상해하니가 윤여정 씨가 "이렇게 잘생긴 애가 죽어야지 슬프잖아"라고 애

기해서 큰 위로가 됐다(웃음).(송)
-캐릭터에 비해 너무 잘생겼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나.

▲촬영 중 모니터를 보면서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내가 '그녀를 믿지 마세요' 촬영할 때도 해도 아무도 나 보고 '꽃미남'이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담은 없다. 요즘 교도소 두발이 다소 자유로운데, 그래도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으니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어울릴 것 같아 머리카락을 잘랐다.(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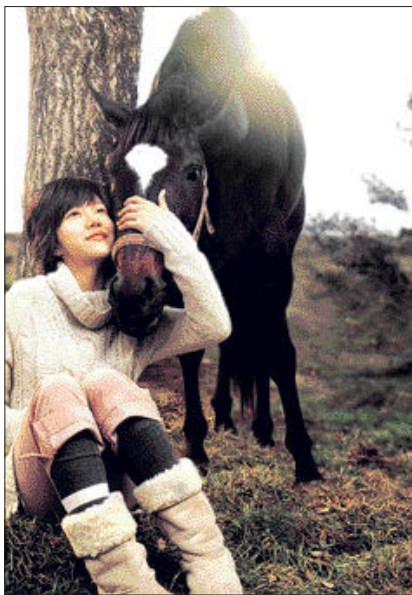
/특선정기자 ksj@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각설탕 어릴때부터 유난히 말을 좋아한 시은(임수정)은 2년전 원치않게 헤어져야 했던 경주마천동리와 운명적으로 재회하게 되고 함께 경매대회에 출전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제일, CGV(상무·첨단), 히미,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다세포소년 인터넷 민화를 원작으로 패러디의 명물 무설모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황당하고 유쾌한 이야기들을 그렸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제일, CGV(상무·첨단), 히미, 목포 메가리안, 목포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게드전기 : 어스시의 전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인기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온 지브리 스튜디오의 신작으로 거장 미야자키 히야오의 아들 미야자키 고로가 메가폰을 잡았다. 용과 인간과 마법이 공존하는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 제일, CGV(상무·첨단), 히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몬스터 하우스 사춘기에 접어든 예민한 디제는 바로 앞집이 악역이 되고 괴물같은 집, '몬스터 하우스'를 사실로 알게 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제일, CGV(상무·첨단), 히미,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플라이 디디 신세대 스타 이준기가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된 영화. 평범한 30대 가장인 장가필(이문세)이 폭행당한 딸을 위해 싸움 대장 승석(이준기)에게 싸움을 배운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히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스승의 은혜 장년 퇴직후 시골에 혼자 살고 있는 박여목(오미혜) 선생에게 16년 전의 제자들이 찾아오면서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진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히미,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괴물 던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았던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다. 괴물을 상대로 가족의 사투가 펼쳐진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 제일, 콜롬(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히미,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한반도 강우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간의 역사적인 논란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는 가상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롯데(광주), 무등,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히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클림트 '기스'의 작가로 잘 알려진 구스타프 클림트의 삶을 다룬 영화로 존 말코비치가 주연을 맡았다. 18세 관람가.	광주극장

주목! 이영화

여주인공 임수정, 말 '천둥이'와 깊은 교감



한국 최초 동물영화 '각설탕'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 영화인 '각설탕'이 '괴물'에 이어 한국 영화의 강세를 이어갈지 눈길을 끌고 있다.
'각설탕'(감독 이환경·제작 싸이더스 FNH)은 탄탄한 연기력과 독특한 매력을 가진 임수정과 '연기자'로서 찬사를 받은 말 '천둥이'와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영화 '장화, 홍련'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에서 우울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이방인 같은 역할을 해왔던 임수정이 명랑하고 역적스러운 기수로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최고의 여자 기수를 꿈꾸는 시은(임수정)은 자신의 분신 같은 말 '천둥이'와 2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한다.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경마 장면이 볼거리다.
자극을 출판한 요소는 없지만 잔잔하게 흘러가는 시은과 천둥이의 이야기가 감동을 준다. 임수정이 수 개월에 걸쳐서 연습했다는 경기 장면이나, 생생한 말의 움직임 등이 현장감을 더한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말 역시 충실하게 역할을 해냈다.
젊은 여배우 임수정이 원뿔 여배우로서 알만큼의 흥행성적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각설탕은 '천둥이'가 좋아하는 간식 중의 하나. 전체 관람가.
/특선정기자 ksj@kwangju.co.kr

영화계는 지금

궁에 김영철 어리숙한 형사로



'그놈 목소리'서 김옥중역 맡아

궁에, 김두동 등 선 굵은 연기를 주로 선보여온 김영철(사진)이 어리숙한 형사로 변신한다.
김영철은 박진표 감독의 신작 '그놈 목소리'에서 극중 아버지 한경배(설경구)를 따라다니는 어설플 강력단 형사 김옥중으로 변신해 유괴범(목소리 연기 강동원)의 뒤를 추적할 예정이다.
7월 크랭크 인한 '그놈 목소리'는 지난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미제사건인 1991년 벌어진 이형호 유괴사건을 모티프로 한 팩션영화. 유괴범에게 어린 아들을 빼앗기고 집요한 협박 전화에 시달리게 된 부모의 피말리는 44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신·갈 역사문화탐방단
수려한 유수지방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소박한 여행!**

일본 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

▶ 8월 28일~31일(3박4일) ▶ 참가비: 20만원(기차) ▶ 여행요금: 10~15만원(항공, 교통, 숙박, 식사, 입장료, 보험료 등)

일본 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일본 규슈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규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 유산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이번 탐방단은 규슈의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방문하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일정

8월 28일: 규슈 도착, 호텔 체크인, 오리엔테이션
8월 29일: 규슈 역사 탐방 (Fukuoka, Saga, Nagasaki 등)
8월 30일: 규슈 문화 탐방 (Beppu, Minamiasahi 등)
8월 31일: 규슈 여행 종료, 공항 출국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신청서와 참가비를 제출합니다.
2. 선발: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참가비와 여행요금을 안내합니다.
3. 출발: 8월 28일 규슈에 도착합니다.

문의처

광주일보 (주) 문화기획팀
전화: 061-320-0541, 320-0511
팩스: 061-320-0511